

새로운 유령, 3층 스크립트

#목적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심순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애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춘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숙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증거물은 카트 속 물건들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거물 제 2호. 카트 속 물건들

1.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책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영등포공원 광장 간이도서관에
놓여있었습니다.

영지씨의 딸 민지가 나를 집어
그들의 카트에 넣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와 세제와 색칠북,
신발이나 신문지 사이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도난이나 분실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색칠북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영지씨와 그의 딸 민지가
침터에 들어가면서
저는 쓰레기로 분리되어 폐기되었습니다.

단체생활에서는 개인 물품 소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노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든 가는 사람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신발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영지씨가 신발만 남기고 떠났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린 건 민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종되었다고,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가출이라고 분류했습니다.

민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종이 신문 뭉치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일명 그림자 어린이를 찾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영지씨가 읽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 증거물은 통계들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거물 제3호. 통계들

1.

안녕하세요.

저는 판결문 검색 결과입니다.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그 중에 저는 최근 5년치 영아살해 사건

24개와 관련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등장한 24개 영아살해 사건의 주범은 전원이 여성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거주자 통계입니다.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서울시 거주자는 9,414,093명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진짜 같지만,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인원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사는 이들은

숨기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능숙하게 잘 숨는 사람들과

그들의 능력이,

통계를 완성했을 뿐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노숙인 통계 조회 결과입니다.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조회 결과는 없습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발언할 증거물은 물비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거물4. 물비누

1.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역 공용화장실의 물비누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영지씨는 서울에 온 후,

지하철역 공용 화장실에서

펌프질을 하면 흘러나오는

초록색 물비누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깨끗한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을거야.

민지의 얼굴을 닦으며,

영지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역 공용화장실의 물비누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영지씨는 서울에 온 후,

지하철역 공용 화장실에서 펌프질을 하면 흘러나오는 초록색 물비누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

민지는 영지씨의 말을 들었고

기억합니다.

이어서 발언할 증거물은 여성노숙인쉼터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거물 제5호. 쉼터

1.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노숙인쉼터 간판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저는 바깥에 붙어 있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없어서 그냥 가정집처럼
보입니다.

경찰과 남편과 아버지들이
여자들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조심성 없이 대문을 지나 여자들을 ‘잡아’ 갔습니다.

죄가 없어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화요일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일반 노숙인쉼터에는 없지만
여성노숙인 쉼터에는 있는 것이 될까요?

(대답을 살핀 후) 어린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간판 없는 쉼터 마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수업이 있습니다.

영지씨와 민지는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쉼터 안내문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여자들은 저를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보통 아주 많이 구겨지곤 합니다.
축축하기도 합니다.

그날 저는 영지씨의 딸 민지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구겨지지 않고
종이 비행기로 접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한 번도 날리지 않았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색 대문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영지씨와 민지는 쉽터를 벗어나
다시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몰래 나가려고 했지만
녹슨 철제문이 삐걱이며
천둥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 우스워
깔깔대며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발언할 증거물은 숨이불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거물 제6호. 숨이불

1.

안녕하세요.

저는 숨이불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저는 민지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이불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영지씨는 민지 아빠의 취중 폭력을 피해

쫓기듯 민지 방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지씨도 민지도

함께 방을 쓰는 게 즐거웠습니다.

둘은 작은 숨이불 속에 누워서

잘 잤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숨이불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저는 가볍지만 부피가 꽤 큼니다.

영지씨와 민지가 이불을 챙기자고 하며

저를 보따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이어서 발언할 증거물은 보따리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거물 제7호. 보따리

1.

안녕하세요.

저는 보따리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피난 가는 사람이
급히 쟁긴 보따리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몇 번이나 싸고 풀며
대비하던 영지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계획된 보따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보따리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영지씨는 저를 잃어버렸다고 했지요?

아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입니다.

그게 민지의 손을

더 잘 잡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지씨였다고 해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보따리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저에 관해 떠도는 소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에 썩었다거나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거나

치위도 다시 나타난다거나 하는 소문.

그것은 진실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보따리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영지씨가
여기 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가 지켜낸 선택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보따리이고,

이름은 [본인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영지씨가
여기 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영지씨가
여기에 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는 않는 것을 선택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발언할 증거물은 노랫말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거물8. 노랫말

안녕하세요,
저는 증거물 6호 노랫말입니다.
이름은 하은빈입니다.

저는 원래 안부를 묻거나
기쁨을 전하는 인사였고,
때로는 하소연이기도
동시에 칭송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혼잣말이었다가 한숨이었다가,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저를 두고
변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삿상에 오른 반짝이는 사물들
즐거워보여요

한번도
사랑받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만 같아요

이것은 몇 해전 내가 입으려고 했던
수의입니다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죽는 데에 실패합시다
끝이 없는 괄호를 세는 데에
너도 나도 손을 보태는
각자의 수의를 입고 나타나
살아가자는 저주를 건네는

취약한 이들이 모두 초대된
슬프고 기쁜 그 장례식에서
소원을 빌고 불을 끄는 동안
아주 잠시 아무도 울지 않네

취약한 이들이 모두 초대된
슬프고 기쁜 그 장례식에서
소원을 빌고 불을 끄는 동안
아주 잠시 아무도 울지 않네
아주 잠시 아무도 울지 않네